

#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최근 3년간의 논문분석 (2007~2009년)

김증임<sup>1</sup> · 이은희<sup>2</sup> · 강희선<sup>3</sup> · 오현이<sup>4</sup> · 이은주<sup>5</sup> · 전은미<sup>6</sup> · 천숙희<sup>7</sup>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sup>1</sup>,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sup>2</sup>,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sup>3</sup>,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sup>4</sup>,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sup>5</sup>,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sup>6</sup>,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sup>7</sup>

## Analysis of Published Papers by Keywords and Research Methods i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7~2009)

Kim, Jeung-Im<sup>1</sup> · Lee, Eun-Hee<sup>2</sup> · Kang, Hee Sun<sup>3</sup> · Oh, Hyun-Ei<sup>4</sup> · Lee, Eun-Joo<sup>5</sup> · Jun, Eun-Mi<sup>6</sup> · Cheon, Suk-Hee<sup>7</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sup>3</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up>4</sup>Professor, School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sup>5</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6</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sup>7</sup>Assi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s aim was to analyze literature using the identified key words of published literature within the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Nursing from 2007~2009. The study explored the major subjects and research methodology used and evaluated the quality of this Journal articles. **Methods:** Survey design using a structured analysis format was used for consistent evaluation of research subjects, type of research, research methodology, data analysis, along with comparing intervention research, theoretical framework, ethical consideration, and the implications. The frequency of the use of each keyword was classified by 8 domains. **Results:** Ninety eight papers were analyzed altogether. Most of the subjects in these papers were women with 86.7 % being quantitative research. In these studies, 76.5% used convenience sampling; 70.6% used a survey design whereas 23.5% used experimental design. Health related concepts (n=159) was mentioned the most among the 8 domains. The key words frequently used were women, depression, knowledge, quality of life, attitude, elderly, anxiety and stress in descending order. **Conclusion:** It can be concluded that most papers in this Journal during this time period addressed recent women's health issues. Also it showed this Journal and its literature has reached the indexing for Medline.

**Key Words:** Classification, Research, Women' health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여성건강간호학회지는 1995년에 모아간호학회지로부터 분리되어 여성건강간호학회지라는 새로운 학회지명으로 발간을 시작하여 1997년까지는 매년 2회, 2000년부터는 매년 4회씩 발간해 왔다. 이어 2003년에는 KoMed에 등재를, 2005

년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2007년에 계속 평가를 통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간호계의 대표적인 database인 미국 CINAHL-E에 등재를 허락받았으나(Kim, Park, Park, Chung, & Ahn, 2007), CINAHL회사와의 연계부족으로 등재된 학회지 검색이 잘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8년 행정적인 처리를 완료하여 CINAHL-E database에 등재되어 현재는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계속해서 한국의학학술

**주요어:** 여성건강, 주요어, 분류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ang, Hee Sun,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uk-dong,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el: 82-2-820-5699, Fax: 82-2-824-7961, E-mail: goodcare@cau.ac.kr

투고일: 2010년 7월 30일 / 1차심사완료일: 2010년 8월 23일, 2차심사완료일: 2010년 8월 27일 /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7일

지편집인연합회(KoreaMed)가 주관하는 편집인 연수 등을 통해 KoMCI의 회원학회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xmlink, synapse에 연결하여 여성건강간호학회지를 해외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2007년에 이전 3년간의 논문을 분석하였을 때는 등재지가 아닌 상태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실기 위한 노력과 정시발행을 위한 노력을 하는 두 가지 측면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외국인의 투고가 가능하도록 영문심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통계상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통계전문위원도 위촉되어 있다.

최근 들어 대학마다 교원평가가 더욱 강화되면서, 교수들은 논문을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SCI나 S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전에 학진등재지와 학진등재후보지의 학술지 가운데 어느 쪽으로 투고를 해야 할 지 고민하던 양상이 지금은 SCI/SSCI와 학진등재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발전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서 알아보기 위해 KoMCI (Korean Medical Citation Index)에서 검색하여 본 결과, 학진등재후보지가 된 2005년에는 전체 의학 관련 학술지 113종 중 13위, 2006년도 119종 중 12위였다. 이후 2007년 131종 중 23위로 잠시 뒤쳐지다가 2008년도는 141종의 학회지 중 9위를 차지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각 학회지들의 자학회지의 경쟁적인 인용 노력에 비해 우리학회지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한 탓인지 2009년에는 156종 중 37위로 밀려나게 되었다(<http://journal.komci.org/ListJournalSum.php>). 물론 이 정도로도 전체 의학학술지와 비교하면 상위에 속하나 여성건강간호학회 회원들이 학회지의 논문을 활용하는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008년의 citation index는 5.33, Imfact factor (IF) 0.238로 우리가 국제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IF를 0.5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는 국제화를 향해 더 준비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속에 있으며, 이제는 CINAHL-E에서 MEDLINE 등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이러한 자체평가를 해오는 학회지도 많지는 않다. KoMCI에서 검색하여 본 결과, 간호계에서는 한국간호과학회지와 여성건강간호학회지뿐이며, 치의학계에서는 치주과학회지 뿐이었다. 그와 비교할 때 여성건강간호학회지는 지난 15년간 벌써 여러 차례의 자체평가를 해오면서

거듭 발전을 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3년간(2007~2009)의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어와 연구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게재된 논문의 연구영역 및 방법을 알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까지 이뤄진 연구경향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체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국제수준의 학회지가 되는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내용 분석 및 학회지의 체제를 검토하여 공표하는 목적은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이 더 자긍심을 가지고 더 많이 활용하여 citation index를 높임과 동시에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철학과 방향에 맞는 논문을 보다 체제를 갖추어 투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006년까지의 논문분석은 이미 오픈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의 변화를 알기 위해 먼저 최근 3년간의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이전 3년간의 결과와 어떤 차이 혹은 변화가 있는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4년 3월호부터 2006년 12월호까지 3년간의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특성을 검토한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즉 Yeoum과 Park (2005)의 8개의 연구영역과 49개 건강문제 중심으로 분류한 것을 근간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건강간호학회가 추구하는 특성을 살리고 관련 학술지와는 차별성을 갖도록 하고자 하며 이러한 학회지에 대한 검토는 과거와 다르게 변화된 여성의 건강문제 및 우리나라의 변화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국제화를 위해 노력해야 될 부분을 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최근 3년간(2007~2009년)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여, 향후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방향 및 철학을 확고히 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대상자를 분석한다.
-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방법론을 분류한다.
-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요어를 이용하여 연구영역별 주제를 분류한다.
- 국제수준 학회지 기준에 도달된 정도를 평가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해보고자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논문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으로 총 98편이다.

### 2. 측정변수 분석

본 논문에서 측정된 변수를 보면,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대상자 및 연구방법론과 연구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구대상자는 발달단계, 건강문제 및 질환별로 보았으며, 연구방법론은 연구방법, 연구설계, 표본추출, 자료수집방법, 통계분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영역의 분석은 Yeoum과 Park (2005)이 사용한 8개 영역으로 나누어 인구학적 영역, 건강행위 영역, 성 관련 영역, 질환 영역, 간호 관련 용어 영역, 생활사건 영역, 연구방법 영역, 그리고 치료적 행위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논문 분석에 앞서 본 연구팀의 논의를 거쳐 연구대상자 및 연구방법론과 연구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분석하기로 결정하고 조사형식 틀을 구성하였다. 이후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출판위원회 7인이 결정된 조사 형식에 따라 해당년도의 논문에 기술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체크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변수별로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계별로 살펴보면 건강한 성인여성이 15편(15.1%), 임산부가 25편(25.2%), 대학생이 16편(16.2%), 초·중·고등학생이 7편(7.1%), 여성노인 7편(7.1%)이었다.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인 경우와 생식기질환이 있는 대상이 9편(9.1%)이었다. 또한 의료인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편(2.0%), 기타 17편(17.2%)으로 분류하였으며, 기타 범주에는 이주민여성(3편), 교사(1편), 아동어머니(2편), 노인주부양자(2편), 초산모배우자(1편) 등이 포함되었다.

위 연구대상자를 성별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여성이 대상자인 경우가 85편(85.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남성이 대상자인 경우는 1편(1.0%), 남녀 모두가 대상자인 경우가 7편(7.1%), 그 외 논문분석(3편), 종설(2편) 및 문헌고찰(1편) 등에 관한 논문이 총 6편(6.1%)으로 나타났다.

**Table 1.** Analysis of Research Subjects (N=99)

Categories	n (%)
Healthy adult women	15 (15.1)
Pregnant women	25 (25.2)
College students	16 (16.2)
High school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7 (7.1)
Elderly women	7 (7.1)
People who have chronic disease (arthritis)	1 (1.0)
People who have reproductive disease (Include dysmenorrhea, breast cancer)	9 (9.1)
People with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0 (0.0)
Health care professionals	2 (2.0)
Others	17 (17.2)

### 2) 논문의 유형

게재된 논문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논문이 71편(7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술진흥재단이나 교내 연구비 수혜를 밝힌 논문이 24편(24.5%)이었으며, 학위논문임을 밝힌 논문은 3편(3.1%)이었다(Table 2).

**Table 2.** Type of Research (N=98)

2008년	n (%)
Thesis or dissertation	3 (3.1)
Funded research	24 (24.5)
General research	71 (72.4)

##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 분석

#### 1) 연구대상자 분류

2007~2009년 3년간의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실린 총 98편에 대한 논문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1편의 논문에서 2개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어 총 99개 연구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를 발달단

## 2. 연구방법론 분석

### 1)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전반적으로 양적 연구가 85편(8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질적 연구는 8편(8.2%)으로 나타났다. 표본추출방법은 임의 표출법이 75편(76.5%)으로 가장 많았고, 의도표출법이 11편(11.2%), 집락표출법이 1편(1.0%), 무작위 표출법이 2편(2.1%)이었다.

연구설계는 양적 연구만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연구설계가 60편(70.6%)으로 과반수를 넘었고, 실험연구설계는 20편(23.5%)이었고, 모두 유사실험설계에 속하였다. 2차 분석을 한 논문이 2편, 설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논문은 없었다.

자료수집방법에서는 질문지법이 82편(7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면접법이 8편(7.3%), 생리적 측정을 한 논문이 11편(10.0%)에 달하였다(Table 3).

**Table 3. Research Methodology**

Variables	Categories	n (%)
Research methods (n=98)	Quantitative research	85 (86.7)
	Qualitative research	8 (8.2)
	Literature review & others	5 (5.1)
Sampling (n=98)	Convenience sampling	75 (76.5)
	Purposive sampling	11 (11.2)
	Cluster sampling	1 (1.0)
	Snowball sampling	0 (0.0)
	Quota sampling	1 (1.0)
	Random sampling	2 (2.1)
	Other	5 (5.1)
	Not applicable	3 (3.1)
Research design (n=85)	Survey design	60 (70.6)
	Experimental design	20 (23.5)
	Secondary analysis	2 (2.4)
	No comments	0 (0.0)
	Not applicable	3 (3.5)
Data collection (n=110) <sup>†</sup>	Questionnaire	82 (74.5)
	Interview	8 (7.3)
	Physiologic measure	11 (10.0)
	Observation	3 (2.7)
	Q-methodology	0 (0.0)
	Others	6 (5.5)

<sup>†</sup>Included several data collection methods.

### 2) 통계기법

자료분석에 사용한 통계기법은 개별 논문마다 다양한 통계기법이 사용되었으므로 각 통계기법을 중복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가 70건(24.1%)으로 나타났고,

t-test가 58건(19.9%), 일변량 ANOVA 분석이 47건(16.2%), 상관분석이 43건(14.8%),  $\chi^2$  검정이 34건(11.7%)이었다. 그 외 회귀분석이 17건(5.8%), 비모수 검정이 7건(2.4%), 다변량 ANOVA 분석이 6건(2.1%)에 달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보고는 72편(73.5%)에서 제시되었으며 2편(2.0%)은 신뢰도를 보고하지 않았다(Table 4).

**Table 4. Data Analysis**

Variables	Categories	n (%)
Data analysis (n=291) <sup>†</sup>	Descriptive statistics	70 (24.1)
	t-test (paired t-test included)	58 (19.9)
	1-way/2-way ANOVA, ANCOVA	47 (16.2)
	Correlation	43 (14.8)
	$\chi^2$	34 (11.7)
	Regression (simple, multiple, hierarchical)	17 (5.8)
	Non-parametric test (Fisher's)	7 (2.4)
	Repeated measure ANOVA, multivariate ANOVA	6 (2.1)
	Factor analysis	2 (0.6)
	Not applicable	7 (2.4)
Reliability (n=98)	Reported	72 (73.5)
	Not reported	2 (2.0)
	Not applicable	24 (24.5)

<sup>†</sup>Multiple response.

### 3) 기타 연구 관련 사항

중재연구는 총 20편이 보고되었다. 이론적 기틀을 밝힌 연구는 5편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논문에서 이론적 기틀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상자를 위한 윤리적 고려를 살펴보면 대상자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기록을 통해 윤리적 고려를 한 경우는 총 92편(문헌고찰이나 논문분석 등 6편 제외)의 논문 중 89편(96.7%), 윤리적 고려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3편(3.3%)이었다. 또 투고규정에서 결과에 기초한 제언을 제시한 경우는 총 98편의 논문 중 96편(98.0%)으로 대부분의 논문에서 제시되었으나, 2편(2.0%)에서는 제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산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논문은 총 83편의 논문 중 25편(30.1%)으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논문인 58편(69.9%)보다 적었다. 표본산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논문은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4편, 2008년 7편, 2009년 14편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 98편의 논문 중 질적 연구 8편, 논문분석 3편, 기타 4편(종설 2편, 문헌고찰 1편, 프로그램개발 1편) 등 총 15편을 제외한 83편을 중심으로 사용된 도구가 저자의 허락을 받았는지와 표본 산정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는지에 대해 분석

한 결과 총 83편의 논문 중 사용된 도구가 개발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언급된 논문은 2편(2.4%)이었고, 생리적 측정만을 사용한 논문이 6편(7.2%), 연구자가 개발하였거나 단일 문항으로 측정된 논문이 10편(12.1%)이었고, 65편(78.3%)의 논문에서는 도구 개발자의 허락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키워드(핵심용어)가 MeSH에 맞는지를 살펴본 결과 총 373개 단어 중 274개(73.5%)가 맞게 사용되었으나 99개 단어(26.5%)는 MeSH와 일치하지 않았다.

### 3. 주요어를 이용한 연구영역의 분석

2007~2009년 3년간 12권의 학회지에 실린 총 98편 논문의 주요어에 대한 빈도 분석을 통해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총 373개의 주요어를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빈도를 계산하였다. 건강관련 개념 영역이 159개로 42.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인구학적 영역은 75개(20.1%), 건강행위(중재)영역은 37개(9.9%)로 나타났다. 성 관련 영역은 22개(5.9%), 질환 영역이 26개(7.0%), 간호 관련 용어는 6개(1.6%), 생활사건 영역이 28개(7.5%), 연구방법이 14개(3.8%), 그리고 치료적 행위가 6개(1.6%)로 나타났다.

#### 1) 인구학적 영역

인구학적 영역의 주요어는 75개(20.1%)이었으며 그 중 여성이 44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여성과 관련된 주요 용어에는 여성, 노인여성, 중년여성, 산후여성, 결혼이주여성이었다고, 그 외 특징적인 것으로 아내, 독신, 비만 여성이 주요어로 사용되었다. 어머니(임산부 포함) 관련 주요어가

7개, 학생이 8개 사용되었다. 그 외 주요어로 환자인 경우 1개, 간호사인 경우가 2개이었다. 기타 대상자로는 아동, 영아, 간호제공자, 배우자, 학교, 이민 등이었다(Table 5).

#### 2) 건강행위(중재) 영역

건강행위(중재) 영역은 37개(9.9%)가 언급되었고, 가장 많이 사용된 영역은 모유수유로 8개 사용되었고, 보완-대체요법이 7개,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행위와 교육, 운동이 각 6개, 출산 2개, 건강증진행위 2개로 나타났다(Table 6).

#### 3) 건강관련개념 영역

건강관련 개념 영역은 전체 주요어 중 159개(42.6%)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일반적인 건강개념이 55개(34.6%), 생리적 건강개념이 21개(13.2%), 사회심리적 건강개념이 83개(52.2%)를 차지하였다. 일반적인 건강개념에서는 지식이 8회, 건강이 7회 언급되었다. 생리적 건강개념에서는 피로, 체중, 출생 시 체중, 체질량지수 등의 주요어가 사용되었다. 사회심리적 영역에서는 우울이 10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삶의 질이 7회, 불안 및 시험불안이 총 6회, 스트레스, 애착, 만족도가 5회씩 사용되었고, 분노는 4회 사용되었다. 3회 언급된 주요어는 정서, 자존감이었으며, 산후우울은 2회 사용되었다(Table 7).

#### 4) 기타 연구영역

기타 주요어는 총 102개이었다. 이 중 성 관련 영역에서 주요어는 22개(21.6%)가 언급되었고, 성행동이 3개, 성적체성, 성역할 정체성, 성역할, 성(sex), 성(sexuality), 성역할이 각 2회씩 사용되었다. 질환영역에서는 주요어 사용빈

Table 5. Demographic Domain by Key Word

(N=75)

Domain	Topic	Key word (n)
Demographic	Women (n=44)	Women (20), elderly (aged) (7), middle aged (5), female (3), postpartum women (3), married immigrant women (2), wife (1), single person (2), obese women (1)
	(To be) Mother (n=7)	Unmarried pregnant women (1), new mother (1), mother (3), perinatal (1), parturient (1)
	Student (n=8)	Students (1), adolescent women (1), adolescent (4), college women (1), female college students (1)
	Patient (n=1)	Clients (1)
	Nurse (n=2)	Women nurses (1), nurses (1)
	Others (n=13)	Child (1), infant (1), caregiver (2), spouse (1), schools (1), immigration (1), employment (1), parenting (4), Korea (1)

**Table 6.** Health Behavior (Intervention) Domain by Key Word

(N=37)

Domain	Topic	Key word (n)
Health behavior (intervention)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n=7)	Reflexology (3), self-foot reflexology (1), foot reflexotherapy (1), complementary therapies (1), alternative therapies (1), aroma (2), includes aromatherapy (1)
	Preventive behavior from disease (n=6)	Breast self examination (1), contraception (2), cervical cancer screening (1), smoking cessation (1), oral health care (1)
	Exercise (n=6)	Yoga (1), exercise (2), tai chi exercise (1), weight reduction (1), pelvic floor muscle contraction (1)
	Education (n=6)	Education (3), health education (1), cognitive intervention (1), breast self-exam program development (1)
	Health promoting behaviors (n=2)	Health promoting behaviors (1), health promotion (1)
	Breast-feeding (n=8)	Breast feeding (6), rooming-in (1), breast feeding management program (1)
	Childbirth (n=2)	Postpartum program (1), abdominal breathing (1)

**Table 7.** Health Related Domain by Key Word

(N=159)

Domain	Topic	Key word (n)
Health related concept	General (n=55)	Knowledge: knowledge (8) Role: maternal role (1), role (3), experience (2) Health: reproductive health (1), health behavior (2), health (2), health recovery (1), women's health (1) Eating: eating behavior (1), dietary habits (2), nutritional surveys (1), eating (1) sleep: sleep (3), sleep states (1), foot (1) Physical activity: activity (1), vital energy (1), breathing (4), fracture (1), fall (1) Disease: prevalence (1), adverse effects (1), prevention (1), suffering physical (1), predictor (1), period (1) Menstrual: menstrual pads (1) Cope: practice (1), compliance (1), coping behavior (1) Life: life experiences (1), life (1), awareness (1) Culture: cultural diversity (1), time (1), media (1)
	Physiologic (n=21)	Instrumental: bone mineral density (2), BMI (2), body weight (1), weight (1), birth weight (1), blood pressure (1), upper limb function (1) Laboratory: serum estrogen (1), saturation oxygen (1), lipids (1), prostaglandin F2 α (1), BAS/BIS (1), cord blood (1) Checklist: menstruation cycle (1), physical symptom (1), fatigue (4)
	Psychosocial (n=83)	Depression: depression (10), postpartum depression (1), perception: self-concept (1), self-esteem (3), self efficacy (1), belief (1), perception (1), myths about uterus (1), facilitator (1), barrier (1) Emotion: anxiety (5), testing anxiety (1), anger (4), stress (5), emotional state (1), emotion (2), comfort (1), discomfort (1), well-being (1), perfectionism (1), guilt (1), virtue (1), intention (1), temperament (1), entrapment (1), object attachment (1), adaptation (1), psychological symptom (1), burden (1), burnout (1), attachment (2) Satisfaction: satisfaction (1), body shape satisfaction (1), personal satisfaction (3), marital relationship (1), body image (3) Support: social support (1), support (1) Attitude: attitude (7), eating attitude (1),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1)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7), menstrual pain (1)

도가 26개(25.5%)이었고, 유방암, 월경통, 간질성 방광염이 각 2개로 나타났다. 생활사건영역에서는 주요어가 28개(27.4%) 언급되었고, 이중 산욕기, 폐경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양육, 출산, 임신, 결혼 등의 주요어가 사용되었다.

간호관련 용어 영역에서는 6개(5.9%)로 나타났고, 간호 요구도와 교육이 제시되었다. 연구방법 영역에서는 14개(13.7%)의 주요어가 사용되었고, 치료적 행위영역은 6개(5.9%)의 주요어가 사용되었다(Table 8).

#### 4. 국제화 지표 관련 분석

Medline에 등재된 저널 평가 기준(Hur, 2010)에 맞추어 본 학회지를 분석한 결과 총 25개 항목 중 14개 항목의 평가 기준을 달성하고 있었다(Table 9).

##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게재된 논문들의 주요어와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연구경향 등을 분석

하였다.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한 Kim 등(2007)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이번 연구에서 조사대상이 된 게재논문편수가 2004~2006년(Kim et al., 2007)의 연구에서 103편이었던 것에 비해 98편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학술진흥재단 후보지에서 등재지로 등록된 상황 속에서 심사가 더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학회지 등에 투고하는 논문이 점차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비 수혜 논문이 27.2%에서 24.5%로 감소된 점은 간호과학회지가 35.9%인 것과 비교해 볼 때(Shin et al., 2010) 아직도 전공영역의 전문학술지보다는 평가가 좋은 학술지와 인센티브가 좋은 SCI 또는 SSCI에 등재된 학회지에 게재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본 학회지가 더 노력하여 국제수준의 학술지로 발전해야 할 과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의 연구설계는 86.7%가 양적 연구로, 2004~2006년 논문분석 결과(Kim et al., 2007)와 거의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설 연구 등이 많아야 하나 본 연구결과 종설, 체계적 문헌고찰 등

**Table 8.** Other Research Domains by Key Word

(N=102)

Domain	Key world (n)
Sex related (n=22)	Sexuality: Sexuality (4), sexual quality (1), sexual health (1), sexual determinant (1), sex (2), sexual behavior (3), sexual impulse (1), sexual consciousness (1) Gender role: gender identity (1), gender role identity (1), gender role (2), sex education (1), sexual dysfunction (1), sexual role identity (1), sex differences (1)
Disease (n=26)	Neoplasm: breast cancer (2), breast neoplasm (1), gynecological neoplasm (1), cancer (1), uterine leiomyoma (1), human papilloma virus (1) Menstruation: menstrual distress (1), amenorrhea (1), a dysmenorrhea (1), changes of menstrual conditions (1) Chronic disease: arthritis (1), irritable bowel syndrome (1), interstitial cystitis (2), hemophilia (1), osteoporosis (2), eating disorder (1),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2) Symptom: miscarriage (1), constipation (1), incontinence (1), infertility (1)
Nursing-related (n=6)	Nursing (1), nursing care (1), nursing intervention (2), nursing need (2)
Life event (n=28)	Marriage: marriage (2), international marriage (1) Pregnancy: pregnancy (3), IVF-ET (in vitro fertilization-embryo transfer) (1), antenatal care (1) Labor: labor (1), preterm labor (3), childbirth experience (1), delivery experience (1), vaginal delivery (1), cesarian section (1), obstetric delivery (1), obstetric labor premature (1) Postpartum: postpartum (2), postpartum period (1), puerperium (1) Midlife: climacteric (1), postmenopause (2), menopause (2), menstruation (1)
Research method (n=14)	Qualitative: qualitative research (2) Quantitative: regression (1), reliability & validity (1), correlation (1), statistical analysis (1), x <sup>2</sup> test (1), research design (1), t-test (1), analysis of variance (1) Others: research subjects (1), research approach (1), topic (1), keyword (1)
Therapeutic medical (n=6)	Hysterectomy (3), chemotherapy (2), hormone replacement therapy (1)

**Table 9.** Evaluation Journal System by Check List Indexing for Medline

No	Item	Check
1	편집인의 임기를 10년 이상 보장하는가?	1
2	학술지를 정시에 발행하는가?	1
3	NLM에 편지를 쓰고 학술지 발송목록에 넣어 정시에 발송하는가?	.
4	의편집의 학술지 실물평가 항목에 맞추어 발행하는가?	1
5	표지에 e-ISSN 및 homepage URL을 인쇄하는가?	.
6	표지 및 속표지에 학술지명을 영문으로만 인쇄하는가?	9월호 예정
7	학술지 영문 homepage가 있고 open access publication/free access publication인가?	.0.5
8	영문 Aims and scope, copyright statement, editorial board member, instruction to authors가 모두 있는가?	.
9	보존용지를 사용하고 사용한다면 그 사실을 표기하는가? (밀레니엄아트로 변경 요함)	.
10	투고규정에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에 따른다고 기술하였나?	.
11	투고규정에 clinical registration, conflict-of-interest statement, statement of informed consent, statement of human and animal rights를 자세히 기술하였는가? (각 150자 이상)	1
12	투고규정에 연구출판윤리는 의편집의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를 따른다는 기술이 있는가?	.
13	투고규정에 peer review process를 설명하고 있는가?	1
14	투고규정에 참고문헌 작성양식을 NLM의 citing medicine에 따른다고 기술하고 지키는가?	.
15	Citation, acknowledgement, table, figure, reference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고 keyword는 MeSH를 쓰는가?	1
16	영문을 native speaker에게 교열을 받는가?	1
17	DOI prefix를 받고 각 논문 heading에 표기하기 위하여 KoreaMed Synapse에 참여하는가?	1
18	Manuscript editor를 활용하고 이름을 학술지에 표기하는가?	.
19	Statistical editor를 활용하고 이름을 학술지에 표기하는가?	1
20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학술지 발행 지원받는 것을 표기하는가?	1
21	계재결정에서 출판까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가?	1
22	초청받는 논문보다 투고논문이 많고 그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가?	1
23	최근 일년간 투고논문의 게재율이 70% 미만인가?	1
24	원저가 종설이나 증례보고보다 많고 그 비율이 70% 이상인가?	1
25	색인된 데이터베이스를 3종 이상 기술하였는가? (KoreaMed, KoMCI, WPRIM, 반드시 기술)	2개
	Total	14.5

은 5편에 불과하여 앞으로 근거중심 간호연구가 더 필요한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04~2006년도(Kim et al., 2007) 논문의 약 69%가 조사연구였었으며 2007~2009년도 논문의 약 70%가 조사연구로 나타나 조사연구는 시간에 따른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료수집방법에서 생리적 측정의 경우 3년 전 Kim 등(2007)의 연구에서 보다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점차 조사나 실험연구에서 주관적 질문을 이용한 자료수집 이외에 근거중심 간호를

위해 생리적 측정과 같은 객관적 자료의 수집이 더 활발해 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여겨진다. 또한 근거중심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연구들이 요구되는 데, 본 연구결과 모유수유, 대안요법, 예방행위, 운동,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등이 시도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모유수유는 해마다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여성건강학

회지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편에 불과하였고, 남녀를 포함한 연구는 7편, 부부 대상 논문 1편, 노인주부양자 남녀 대상 논문이 1편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특징으로 연구대상자 중 임신부가 총 논문의 1/4를 차지하였고, 질병이 있는 여성들보다는 건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성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는 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3년간에 이뤄진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2006년까지 볼 수 없었던 이주민여성이 등장하였고 그 편수도 3편으로 국내에서 이주민 여성들의 증가를 반영하였다고 본다.

표본 수 산출근거는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표본 수 산출기준을 제시한 논문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58.7%가 그 기준을 밝힌 것(Shin et al., 2010)에 비하면, 아직은 그 비율이 낮은 상태로 논문심사 과정에서 보다 강화되고 투고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부분이다.

한편 조사연구 등에서는 도구의 사용권이 중요하다. 특히, 설문지를 사용하게 될 때 도구에 대한 저작권, 신뢰도 및 타당도는 연구설계 시점부터 확보되어야 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도구의 신뢰도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이뤄지고 있었으나 98편 중 2편의 논문은 도구의 신뢰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2004~2006년도 분석결과(Kim et al., 2007)인 8편(7.77%)이 신뢰도 기술을 하지 않았던 점과 비교할 때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도구의 저작권에 대해 언급한 논문은 2편뿐으로, 간호과학회지 분석결과와 유사하나(Shin et al., 2010), 앞으로 본 학회지가 국제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명확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의료연구윤리부분은 세계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과거의 연구참여 동의서만으로는 대상자보호가 되지 않아 반드시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극히 최근 들어 정착하는 단계로서 본 연구대상인 2007~2009년의 연구들은 대부분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 즉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 및 서면 동의를 받았고 그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나 3편의 논문은 윤리적 고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는 3년 전의 분석결과인 32편(31.1%)이 윤리적 고려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과 비교할 때(Kim et al.,

2007) 시대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7~2009년의 3년간 학회지에 실린 주요어에 대한 빈도를 분석한 본 연구결과 총 373개의 주요어를 확인하였고, 8개 영역 중 건강관련 개념 영역이 42.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영역 20.1%, 건강행위(중재)영역 9.9%, 생활사건 영역 7.5%, 질환영역이 7.0%, 성 관련 영역 5.9%, 연구방법 3.8%, 간호관련 용어 1.6%, 치료적 행위 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년 전의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건강행위(중재) 영역은 3년 전 13%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9.9%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실험연구가 28%에서 23%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학회지의 투고규정에서 주요어는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검색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용어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experience, life experiences, satisfaction 등과 같은 단어를 주요어로 선정할 경우가 있었다. 이번 분석에서, 키워드(핵심용어)가 MeSH에 맞는지를 살펴본 결과 총 373개 단어 중 274개(73.5%)가 맞게 사용되었으나 99개 단어(26.5%)는 MeSH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 일 간호학술지의 주요어의 MeSH일치도가 36.6%로(Jeong, Ahn, & Cho, 2005) 아직까지 연구자나 심사자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지각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년 전에도 앞서 지적한 단어들이 MeSH 검색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주요어 선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5회 이상 사용된 주요어는 Women (20), Depression (10), Knowledge (8), Elderly (aged) (7), Attitude (7), Quality of life (7), Breast Feeding (6), Middle aged (5), Stress (5), Anxiety (5)이었다. 이는 간호과학회지의 분석에서 주요용어 사용 빈도수가 10회 이상인 주요어는 depression (35), elderly (28), stress (20), self-efficacy (18), quality of life (16), exercise (14), middle-aged women (13), women (13), dementia (11), health promotion (10), 그리고 social support (10) (Jeong et al., 2005)이었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 여성건강간호학회뿐만 아니라 간호학계에서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학술지로서의 등재를 목표로 하는 여성건강간호학회지가 얼마나 국제 저널의 기준에 맞는지 그 체제를 평가해보았다. 그 결과 25개 항목 중 15개 정도가 통과되었고, 상당수의 항목은 영문으로만 전환하면 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본 학회지의 체제는 그 질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성건강간호학회지는 2008년 학술진흥재단 등재를 비롯하여 한국의학학술지편집인연합회(KoreaMed)가 주관하는 KoMCI의 회원학회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xlink, synapse에 연결되어 있어서 해외에서도 논문을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회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건강간호학회가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항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문 편집인제도와 인쇄 종이의 고급화 등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러한 평가를 시행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며, 국제학술지로서의 비약은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로 학회차원에서 그 대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전 회원이 국제적인 잡지에 투고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여성건강간호 학회지의 국제화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부금을 조성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최근 3년 동안(2007~2009년)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2004~2006년도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성 주요 연구 주제로 사용되어 본 학회지의 고유 영역이 여성에 대한 이슈임을 재확인하였고 건강관련영역이 가장 큰 범위의 연구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방법과 분석방법의 추가 및 다문화여성 연구 등의 등장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보여진다. 또한 국제학술지로서의 면모에 대한 평

가를 통해 추후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파악이 이뤄진 점은 이 연구의 의의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학회지의 현 체제만을 분석하는 것에서 국제 학술지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Hur, S. (2010). Indexing KJWHN for medline. *15th Summer conference proceeding book* (p. 66). Seoul: Sungshin University
- <http://Journal.komci.org/ListJournalSum.php>. Retrieved from <http://Journal.komci.org> on June 10, 2010.
- Jeong, G. H., Ahn, Y. M., & Cho, D. S. (2005). Coincidence analysis of keywords of the Journal of Academy of Nursing with MeSH(2003-2005).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5*(7), 1420-1425.
- Kim, J. I., Park, S. M., Park, H. S., Chung, C. W., & Ahn, S. H. (2007). Analysis of published papers and their keywords i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4-2006).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3*(1), 51-59.
- Shin, H-S., Hyun, M-S., Ku, M-O., Cho, M-O., Kim, S-Y., Jeong, J-S., et al. (2010).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 Focused on research trends, intervention studies, and level of evidence in the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40*(1), 139-149.
- Yeom, S. G., & Park, C. S. (2005). An analysis of articles about women's health.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1*(4), 333-346.